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허풍을 떨며 실천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결점을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3월 24일) 2018년 5월 9일 수요일

백제 사찰 대통사지 주택신축에 묻힐 위기

백제학회 · 불교학연구회 등 12개 학회 온전 발굴조사 촉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제 최대 사찰로 알려진 대통사지로 추정되는 절터가 확인됐다. 하지만 공주시의 한옥신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백제학회 · 불교학연구회 등 12개 학회는 5월 3일 흥사단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사지의 온전한 조사와 보존을 문화재청과 공주시에 촉구했다. 한국사 관련 학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웅진 백제 시기 최대 사찰로 알려진 대통사지로 추정되는 위치가 최근 확인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충남 공주시 반죽동 한옥주택부지에서 사전조사 형식의 발굴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한 부지에서 대통사의 위치를 밝힐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좁은 발굴장에서만 기와편만 2만여 점이 나왔으며, 이중에는 '대통(大通)' 명문의 기와편도 출토됐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대통사는 527년 성왕이 백제 수도였던 웅진에 창건한 사찰이다. 성왕은 중국 양나라에서 경전을 전해 받고 당시 황제였던 무제를 위해 사찰을 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사는 통일신라 이후에도 존속됐지만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어떤 활동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부근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대통사(大通寺)'라고 새겨진 기왓조각이 나와 사지였음이 밝혀졌지만 더 자세한 것이 확인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당간지주에서 150m 떨어진 지점에서 대통사지로 추정될 수 있는 관련 유물이 쏟아지자 학계는 일제히 주목했다. 대통사는 현재까지 삼국시대에 세워진 사찰 중 사찰명과 건립연대, 장소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기 때문이다.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는 "고구려 · 백제 · 신라 사찰 중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사찰이 현재 대통사"라며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면 사비백제를 열었다. 그곳에서 정림사를 창건했는데 대통사를 참고해서 사찰을 축조했을 것이다. 대통사를 확인하는 것은 웅진과 사비백제 왕경의 비밀을 푸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대통사지는 다시 묻힐 위기에 놓여있다. 유물출토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이고 공주시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고도(古都)이미지 찾기 사업'을 진행하며 한옥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온전한 발굴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학회 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굴조사를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사지 추정 유적은 다시 매몰되고 한옥이 건축될 예정"이라며 "공주시 반죽동 일대 한옥신축 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역설적으로 고도 경주의 핵심 유적인 대통사지가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처럼 좁은 면적 단위로 발굴조사가 이뤄지면 대통사지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학자들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구간의 발굴허가 범위는 204㎡지만 안전지대 확보를 위한 공간을 제외하면 허가 면적의 1/2도 발굴하지 못했다"면서 "백제사만이 아니라 한국 고대사에서 매우 소중한 사찰인 대통사지가 발견됐음에도 전체 사역을 밝히기 위한 장기 계획의 수립, 보존과 유네스코 확장 등재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한옥 건축만 논의되는 작금의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1월 한옥부지 사전조사 중
'대통' 명문 와편 등 발굴
대통사지 추정 위치 확인
웅진 왕경 비밀을 풀 열쇠

발굴지 매입해 보존해야
인접지역 체계 연구 필요

그러면서 "대통사지 발굴 지역은 보존돼야 하며,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인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백제사를 복원하고 고도 공주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릴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자들은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주민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이주책 마련 △대통사지 추정 지역 전체를 매수 후 장기 발굴 △대통사지 복원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확장 등재 등을 제안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각 스님은 "구전돼 오던 대통사지의 위치가 확인됐다. 이는 국가적으로 환영할 만하다"면서 "여러 학회의 학자, 연구자들이 연명을 해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적 지정 요청하고 우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올림픽의 감동, 봉축등으로 평창올림픽에서의 감동이 부처님오신날에도 펼쳐진다. 5월 1일 서울 수국사에서는 이른바 '평창올림픽 에디션' 연등이 제작되고 있었다. 깜짝 은메달을 딴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를 연상케 하는 스노보드 동자승연등을 비롯해 스키점프 동자승연등 등 다양한 동계 스포츠 연등이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연등 제작에 참여한 불자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넘쳐 흐른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조계종 "PD수첩 편향보도, 책임 묻겠다"

5월 2일 대변인 브리핑… "소송서 모두 밝혀질 것"

"확인되지 않은 사실 방영해"
교계, 종단 옹호 · 비판 엇갈려

MBC PD수첩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 대한 의혹을 5월 1일 방영한 가운데, 조계종이 이를 '편향보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5월 2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실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편향적 입장만 듣고 방영한 PD수첩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변인 기획실장 금산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계 최대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MBC가 조계종과 관련한 의혹 수준의 문제제기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방송된 내용 중 불교닷컴 이석만은 피고의 지위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취득한 정보를 MBC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전날 조계종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본 것에 대해 윤승환 기획차장은 "PD수첩이 자료를 편집해 송출한 그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불교닷컴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산 스님은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친자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불교닷컴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소송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 설정 스님은 5월 10일 본인 유전자를 채취할 예정"이라며 "설정 스님은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유전자를 채취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력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총무원장 선거 이전 교계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했다"며 "그럼에도 문제제기 하는 이들은 와전됐다는 일부 발언만을 꼬투리삼아 지속적으로 왜곡과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건축박물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덕사로의 소유권 이전은 증여 및 매매방식에 따라 진행됐다. 매매 대금은 약 44억여 원이고, 기채 금액 중 34억 원은 고건축박물관에 설정된 근저당 해제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지급됐다"며 "잔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였던 전흥수 씨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됐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특정 스님을 등장시켜 커다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왜곡 · 날조했다"고 강조했다.

금산 스님은 이어 "최승호 사장은 2017년 9월 '공영방송이 정상화된다면 조계종 적폐 특집 방송을 내보내겠다' 등의 발언을 한 인물이다. PD수첩 이후 방송된 100분 토론에 명진 스님이 출연한 사실은 그 의도를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이라며 "PD수첩은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과 불교와 무관한 이들의 인터뷰 등을 화면으로 내보냈다.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균형성마저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PD수첩 방영 이후 불교계는 종단 옹호와 비판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은 PD수첩 방영을 '불순한 의도'로 규정했으며,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성평등불교연대는 총무원장과 교육원장의 참회와 책임을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 조성 기금마련 선서화전

귀의삼보하옵고

금번 분청대장경연구소는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 조성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분청기법'이라는 새로운 경판제작기법을 개발한 분청대장경연구소가 남북평화통일기원 대장경 조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로 범주스님의 달마도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서예 작품 등 총 200여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의 완성은 약 15년이 걸리는 대작불사입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방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8년 5월 13일(일) 오후 3시 ~ 5월 22일(화)
장 소 : 서울 봉은사 보우당
주 최 : 분청대장경연구소
후 원 : 상주 달마선원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 의 : ☎ 1899-9505 (분청대장경연구소)



분청기법이란 : 분청대장경연구소 소장 정우스님이 1년여 연구에 걸쳐 개발한 새로운 경판제작기법이다. 도자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분청'을 이용해 경판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기존의 목판이나 동판을 이용해 제작한 경판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관상태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